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

남 상 욱
(인천대학교)

◆ 국문초록

이 글은 언어로 미래를 그리는 일은 지금과는 다른 언어의 세계를 그리는 일임과 동시에, 언어가 달라진 미래와 현재 사이에 동일성을 현재의 언어로 확보해야 한다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디스토피아의 언어 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중언어 작가로서 독일과 일본어 사이의 경계를 횡단하던 다와다 요코에게 있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신체적 변동에 따른 기존의 시니피양과 시니피에 사이의 질서가 파괴된 세계의 출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불사의 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등사」는 쇄국정책 등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적 질서가 파괴된 세계 속에서도 다중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활동을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와다 요코의 소설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인간이 다양한 언어의 힘에 기대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상 그 산물로서 어떤 생생한 디스토피아 속에도 실은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다와다 요코, 헌등사, 불사의 섬, 디스토피아, 언어 표상

* 본 논문은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8929).

1. 언어로 미래를 쓴다는 것의 의미

문학이 그리는 미래 속의 언어는 과연 어떻게 표상되고 있을까.

예컨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Nineteen Eighty-Four)』(1949)는 미래의 언어 문제를 가장 의식적으로 문제시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가 텍스트 말미에 굳이 부록 ‘신어의 원리’를 수록한 것도 미래의 문제는 바로 미래 언어의 문제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부록은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권력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어 세계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¹⁾, 여기서 우리는 일견 변화하기 힘들 것 같은 언어 세계가 미래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 ‘미래’는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언어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의 질서로 구성된 세계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미래’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적 질서로 구성된 세계라면, 그것은 지금의 언어로 도대체 어떻게 표상될 수 있을까. 예컨대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어느 날 문득 일기를 쓰기로 작정하고, ‘1984년 4월 4일’이라고 적은 후,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어떻게 미래와 소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다르다면 이 수난의 기록은 무의미한 것이 되리라²⁾.

당시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휘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신어(新語)를 개발해 유포한 상황에서, 이제 막 개시되려 하는 일기의 언어 속에 담긴 의미가 미래에도 여전히 같은 의미일 수 있을지를 자문하는 윈스턴의 말은, 흔히 이 텍스트가 권력과 사적 공간 사이의 이항대립을 전

1) 박영은, 「자마전의 소설 『우리들』의 국제성과 예술적 방향 - 헉슬리의 『멋진 신 세계』와 오웰의 『1984년』에 미친 디스토피아 소설의 ‘언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노어노문학』 제19권 제1호, 2007, 199-227쪽 .

2) 조지 오웰, 정희성(역), 『1984』, 민음사, 2003, 17쪽.

제한 후, 막강한 권력에 의한 사적 공간 침해를 문제시하는 작품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즉, 위의 의문은 일기라는 개인의 가장 사적 영역의 기록이 언어라는 공공적인 것과 분리할 수 없음을 전제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따라서 윈스턴의 의문을 통해 작가가 문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윈스턴 개인의 사적 영역 침해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의미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인 것으로서 언어의 변동 가능성 아닐까. 요컨대 위의 ‘이 수난의 기록’은 단순히 윈스턴 개인의 수난에 그치지 않고, 공공적인 것으로서 언어의 수난이라고 봐야 한다.

이처럼 『1984』는 어떤 권력에 의해 인간의 언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변용된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지 오웰은 언어로 미래를 그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지금과는 다른 언어의 세계를 그리는 일임과 동시에, 언어가 달라진 미래와 현재 사이에 동일성을 현재의 언어로 확보해야 한다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지 오웰의 문제의식은 이 작품 이후의 세계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현대작가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헌등사(献灯使)』(2014)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편의 작품 중에서 「헌등사(献灯使)」와 「불사의 섬(不死の島)」을 중심으로 미래를 그리는 문학 작품 세계 속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³⁾. 이 작품들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근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문학에서는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신2011(神様2011)」과 이토 세이코(いとう せいこう)의 『상상라디오(想像ラジオ)』 등과 함께, 이른바 ‘진재 후 문학(震災後文學)’, 혹은 ‘재난 문학’으로 분류된다⁴⁾. 예컨대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는 「불사의 섬(不死の島)」을,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된 ‘민영화’와 공리주의로

3)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과 초출은 다음과 같다. 「献灯使」, 『群像』, 2014년 8월호, 「韋駄天どこまでも」, 『群像』, 2014년 2월호, 「不死の島」, 『それでも三月はまた』, 講談社, 2012, 「彼岸」, 『早稲田文学』, 2014년 가을호, 「動物たちのパベル」, 『すばる』, 2013년 8월호.

4) 최가형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 재난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6, 50-73쪽.

인해, 오히려 ‘경쟁사회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세계’가 되어 버린 일본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⁵⁾.

하지만 한편으로 ‘진재 후 문학’이라는, 2010년대 일본이 처한 특수성 속에서만 다와다의 작품들을 읽는 것은,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문학으로서 가능성은 차지하고서라도, 다와다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문학사에서 다와다는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이중언어 작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공부하다가 만22세가 되던 1982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일로 건너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일에 체재하고 있는 다와다는, 1987년 일본어와 독일어로 된 시집 『당신이 있는 곳만 아무 것도 없다(あなたのいるところだけ何も無い)』(1987)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개시했고, 1987년 첫독일어 소설집인 『목욕탕(Das Bad)』(1987)을 출간하며 독일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1991년 잡지 『군조(群像)』에 「발뒤꿈치를 잃고서(かかとを失くして)」(1991)를 발표 제34회 군조신인문학상을, 1993년에는 『개 데릴사위(犬婿入り)』(1993)로 제108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일약 문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지금까지 각각 독일어 작품집을 20여권, 일본어로 된 작품을 20권 이상을 각각 출간했으며, 이 중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은 독일어로부터는 『목욕탕(Das Bad)』(2011)과 『영혼이 없는 작가(erzähler ohne seelen)』(2011). 일본어로부터는 『용의자의 야간열차(容疑者の夜行列車)』(2016). 『헌등사(献灯使)』(2018)가 있다.

이러한 경력에서 보듯이 다와다는 일본 열도 안의 ‘국민’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재현하는 전형적인 국민 작가, 혹은 헉슬리(Aldous Huxley)나 조지 오웰처럼 지구적 차원의 유토피아/디스토피아 작가로서보다는, 일본어와 독일어, 양자의 언어로 작품을 쓰는 이중언어 작가, 혹은 이민작가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다와다 스스로도 자신이 이민, 망명, 여행, 일 등에 의해 모국어 바깥에 있는 상태인, 이른바 ‘엑스포니(Exophonie)’의 상황을 공유하는 작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⁶⁾. 특히 이한정이 지적한 바 있듯이 ‘깨끗한

5)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3, 129~136쪽.

6) 多和田葉子, 『エクソフォニー-母語の外へ出る旅-』, 岩波書店, 2012, 7-8쪽.

일본어(綺麗な日本語)’에 대한 대항의식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다와다 문학은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조형된 자국어’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⁷⁾.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다와다 문학의 매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2004년 문화예술 잡지 『유레카(ユリイカ)』는 다와다 요코를 특집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서 그녀의 문학 작품을 꽤 뚫는 키워드들로서 ‘언어’, ‘문자’, 그리고 ‘사이’ 등이 선별된 것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⁸⁾. 독문학자 최윤영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탈경계적 글쓰기로서는 드물게 다와다의 작품 세계는 일본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 문학성이 인정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⁹⁾. 이러한 평가 속에서 최근 한국의 한 문학 잡지에서 다와다를 ‘이방인’, ‘언어의 여행자’라는 키워드로 소개한 적이 있다¹⁰⁾.

그런데 그런 다와다가 2012년 「불사의 섬」을 시작으로 2014년 「현등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예감시키는 일련의 디스토피아 소설들을 발표했고, 이들 작품들은 2014년 『현등사』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일본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¹¹⁾.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대규모 원전사고가 거듭 일어나 일본열도는 동아시아에서 멀어져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로 일종의 ‘쇄국’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설정을 공유하는 작품들은, 이제까지 그다지 강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의 작품 경향과는 다르게, 사고 이후에도 거듭되는 일본 정부의 원전유지 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¹²⁾. 그렇다면 일견 ‘온건’

-
- 7) 이한정, 「일본 현대 작가의 자국어인식」 『日本語文學』 제40집, 2009, 165쪽.
 8) 齋藤環, 「言語の谷間の夢の闕」 『ユリイカ』 제36권 14호, 青土社, 2004, 85-91쪽.
 田中純, 「人形文字／文字という人形 -「ゴットハルト鉄道」を中心に」 『ユリイカ』 제36권 14호, 青土社, 2004, 162-169쪽. 前田壘, 「あなたでない者 あなたでない言葉」 『ユリイカ』 제36권 14호, 青土社, 2004, 207-215쪽.
 9) 최윤영,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일본비평』 12, 2015, 329쪽.
 10) 다와다 요코, 배수아 「이방인 되기라는 예술」 『Axt』 no10, 은행나무, 2017. 34-45쪽.
 11) 김민희, 「미래의 일본에서 현재의 일본을 보다」 『서울신문』, 2014년 11월 28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9017003#csidx6f090ce0a512ce596b531f6ba3df16c> 기사검색일(2018.04.30.)
 12) 이중언어 작가로서 다와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는 그녀의 이중언어성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냉전 종식 후 확산되는 신자

한 이중언어 작가인 그녀는 어떻게 강한 현실 비판적 의미를 담은 디스토피아 작가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혹은 그녀의 언어적 관심은 디스토피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중언어 작가인 다와다에게 있어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표상되고, 그것이 작가의 언어관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를, 『헌등사』 속에 수록된 5편의 작품 중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 외의 다른 세 작품에도 다와다의 언어 인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미래 속에 다가올지도 모를 ‘언어의 수난’과 관련해서 이 두 작품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학이 그리는 미래 속의 언어 변동에 주목하는 이 글의 시도는, ‘진재 후 문학’이라는 장르 속에서만 이 텍스트를 바라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문학으로서 다와다 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3·11 이후의 새로운 경계선의 출현과 언어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하던 일본에서 당시로서는 근미래인 2017년 태평양지진으로 새롭게 4개의 원전이 폭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다음과 인상 깊은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패스포트를 받으려고 내민 손이 일순 멈추었다. 젊은 금발의 여권 조

유주의 속에서 일종의 자유 선택으로 행해짐으로써 양쪽 언어권 독자들을 크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불행한 과거사나 언어적 차이에 눌리지 않고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와 고독의 향유는 일본과 독일 양국의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시대적 요청과 부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녀가 유럽과 일본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서경식과의 서신 교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식·타와다 요코, 서은혜(역) 『경계에서 춤추다』, 창비, 2010, 174-183쪽.) 그럼에도 그녀의 작품들이 예컨대 재일조선인, 재조일본인 작가의 작품처럼 양 언어 사이에 역학관계를 제국과 피식민자,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마이너리티와의 관련성 속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힘들다.

사원의 얼굴이 굳어지고, 말을 찾고 있는지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다. 목 소리를 낸 것은 내 쪽이 빨랐다. “이것은 분명 일본의 패스포트이지만요, 나는 이미 30년 전부터 독일에 살고 있고, 지금 미국여행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 이래로 일본에 가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 말하고 말을 끊고, 그 직후에 생각한 것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설마 여권에 방사성 물질이 묻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오염물 취급 하지 말아 주세요.’ 받아주지 않는 패스포트를 일단 내 쪽으로 끌어당겨 이번에는 영주권 스티커가 붙어 있는 페이지를 펼쳐 다시금 내밀자, 상대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받아 쥐었다.

‘그 이후로 일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한 자신이 한심했다. ‘일본’이라는 말을 들으면 2011년에는 동정을 받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차별받게 되었다. 유럽 공동체의 패스포트를 받으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일본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지 몰랐지만 왠지 신성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버린 탓에 오히려 이 패스포트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기도 했다.

나는 빨간 표지에 핀 국화를 원망스럽게 노려봤다. 그 순간, 국화 꽃잎이 한 장 많아져 17장 있는 듯이 보여 오싹했지만 패스포트의 표지에 핀 꽃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날 리는 없다. 13)

이렇게 다와다는 3·11 이후,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더 큰 사고 이후 ‘일본’의 미래의 모습을 하필이면 독일의 한 공항 입국심사대라는 경계에서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녀에게 3·11 이후 일본의 미래를 묻는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계선에 직면하고, 거기서 자신의 귀속성을 재확인하는 문제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그 경계선은 단순히 일본과 독일이라는 두 국가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경계, 혹은 언어적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3·11 직후 독일은 곧바로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일본과는 다른 미래를 걷기 시작했고, 바로 그러한 미래의 방향성의 차이가 금발의 젊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가 새겨진 패스포트로부터 ‘방사능 오염’을 떠올리며, 얼굴이 굳어지고 손에 쥐기를 꺼려하는, 심리적인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3·11은 원전이 위험

13) 다와다 요코, 남상욱(역), 『현등사』, 자음과모음, 2014, 213-4쪽.

하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이를 정지한 나라와, 원전이 폭발해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폭을 받고 방사능 오염지구가 생겼는데도 원전을 멈추지 않는 나라 사이의 심리적 경계선마저 만들어내게 된 셈이다. 텍스트 속에서 다와다처럼 독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나’는, ‘일본’ 패스포트를 속의 ‘독일’ 영주권을 제시함으로써 가까스로 그러한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한다.

물론 그러한 증표로 심리적 경계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실제로 EU의 탄생으로 유럽 내에 경계선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경계’라는 개념은 인간의 뇌리 속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출몰하여, 그 경계선 밖의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차별’하고,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어떤 인간을 다시금 ‘패스포트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불과 몇 년간의 유럽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차별을 계기로, 경계선에 걸쳐 있던 ‘나’는 일본 쪽으로 성큼 다가서려는 것일까.

『불사의 섬』 속의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일이라는 먼 곳에서 그저 그곳을 바라볼 뿐이다. 그것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확산으로 인해 일본행 비행을 기장들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일본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는 맨하튼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 회사에서 오사카행 티켓을 살 수 있는 소문을 듣고는 미국으로 날아가 보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온다. 일본으로 가는 모든 항공노선이 폐지되어 일본에 갈 수 없게 된 ‘나’는, 그래도 일본을 밀항해서 다녀온 포르투갈 사람이 쓴 『페르낭 멘디스 핀투 손자의 이상한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일본 사정을 알고자 애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본에 갈 수 없게 된 ‘나’는 심리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가는 것이다

사실 “언어 표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에 육박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모어의 외부’로 나가는 문학을 지향해왔던 다와다의 작품 세계 속에서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¹⁴⁾. 실제로 그녀의 작품 세계 속에서 일본이 등장하는 것은

14) 多和田葉子, 『エクソフォニー-母語の外へ出る旅-』, 岩波書店, 2012, 10쪽.

처녀작인 『개 데릴사위(犬婿入り)』 이후 처음이라고 다와다는 밝히고 있다¹⁵⁾. 물론 이한정이 지적한 것처럼 그녀가 일본인들의 자국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어 인식과 관련된 이른바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일본정부의 정책이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다. 그건 다와다가 독일어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던 대부분의 시기가, 냉전의 종식과 연이은 글로벌리즘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세계로 활짝 열려가던 시기라는 것과는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3·11은 이러한 일본에 대한 다와다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 일종의 사건이었다.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짤막한 에세이에서 다와다는 2011년 3월 베를린 자택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식을 라디오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주변의 독일인 지인으로부터 어째서 일본인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워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뒤지던 중, 후쿠시마 부근으로부터 교토로 피난한 가족에 대한 기사에 달린 매도 댓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밝힌다.

분명 당장 이사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 격차에 화가 난다면 어째서 엄청나게 회비가 비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을 향한 매도의 말이 넷에서는 발견되지 않을까. 어째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고 정당한 돈을 쓰는 사람이 질척질척하고 어두운 험담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자기만 도망가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이 현실과 유리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그 자리에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남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망치는 편이 낫지 않은가. 이 문제에는 상당히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여름에 쓴 것이 「불사의 섬」이었다.¹⁶⁾

15) 多和田葉子×ロバート・キャンベル, 「[対談]やがて"希望"は戻る-旅立つ『献灯使』たち」『群像』vol.70(1), 講談社, 214쪽.

16) 多和田葉子, 「『献灯使』をめぐって-『献灯使』著・多和田葉子」『読書人の雑誌「本」』,

방사능을 피해 당장 이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뿐이며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다는 막대한 현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과정에 투입된 사람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장 이사한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독일에서 체류한 다와다에게 있어 ‘자기만 도망가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비단 피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3·11 직후 일본에 체재하고 있었던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일본을 떠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족을 향한 배외주의가 혐한시위라는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인들의 패스포트를 받는 외국의 입국심사대 직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것임을 해외에 살고 있는 다와다는 직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대적 일본 상황을 ‘쇄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소설이 바로 「불사의 섬」이며, 이를 통해 다와다는 동시대 일본인들의 배타적 성향에 대해 반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피난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한 반발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텍스트에 삽입되어 있다.

2011년에 아이였던 사람들은 차례로 병에 걸려,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가 필요했다. 어찌 되었든 매일 받는 방사능은 미량이라든,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해가면 순식간에 100배, 1,000배로 늘고 만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위험하다. 그런 것은 애당초 알고 있었는데도 2011년에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일본 서남으로 달아난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없었다. 17)

이처럼 다와다는 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방사능 유출 지역 바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포분열이 활발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2014.11.15. 인용은 다음 링크에서 함. <http://gendai.ismedia.jp/articles/-/40935>
(기사검색일 : 2018년 4월 15일)

17) 다와다 요코, 남상욱(역), 『현등사』, 자음과모음, 2014, 221쪽.

때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런 다와다도 왜 2011년 일본에서 아이를 데리고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떠난 사람의 수가 소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대신 「불사의 섬」은 그러한 재난의 원인을, Z그룹이라고 자칭하는 일당들에 의한 일본정부의 ‘민영화’로 설명한다. 즉, 1990년대부터 전세계에 휘몰아닥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결과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로 인한 일본의 쇠국에 다름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사의 섬」은 디스토피아 소설 이전에, 소설 언어를 통한 현실 언어에 대한 개입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1이라는 사건은 다와다로 하여금 동시대 일본의 현주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와다가 자국민중심주의로 무장한 배타적인 국가로서 일본을 강하게 거부하는 대신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던 전후적 시스템으로서 일본을 긍정하는 모습을, 「헌동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단카이 세대에 해당하는 요시와와 그의 아내 마리카가 60년대 후반 시위를 하면서 알게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대목이나, 결혼 후에도 마리카가 시민운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그러하다. 이렇듯 다와다에게 있어 3·11은 자신을 배타적인 성향 하에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동시대 일본이 아니라, 전쟁을 금지하는 헌법 9조의 이념을 지키며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었던 ‘전후일본’에 귀속시키는 사건으로 의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다와다에게 3·11은 단순히 일본과 독일 사이의 경계선, 혹은 전후일본과 3·11이후의 일본 사이의 경계선만이 아니라, 현실과 언어의 경계선이 새롭게 재편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사능 노출로 인해 자연은 유전자의 변동을 겪을 수 있는 데 반해, 언어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앞선 인용에서 봤듯이 “패스포트의 표지에 핀 꽃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날 리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와다의 디스토피아는 바로 이러한 현실의 급격한 변동을 기존의 언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 변동에 대한 언어의 낙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성립된다. 예컨대 극심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유전자의 변용으로 노

인은 죽지 않고, 젊은이들은 노인처럼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젊다고 하는 형용사가 젊음이었던 시대는 끝나고, 젊다고 하면 설수 없다, 걸을 수 없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먹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말았다. ‘영원의 청춘’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는 앞 세기까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¹⁸⁾

일찍이 다와다는 신체와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체 감각이 언어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언어의 경계를 넘는 순간 육체는 혼란에 빠집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¹⁹⁾, 이는 그녀가 신체에 대한 언어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다와다는 현실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겪게 되는 급격한 신체적 변동에, ‘젊음’이라는 말 그 자체가 따라갈 수 없음을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실이 파괴되어도 ‘젊다’라는 시니피앙은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으니, 그 대신 시니피앙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현 장치로서의 언어의 안정성이 파괴되는 공간이 바로 다와다가 상정하는 2011년 이후 일본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시니피앙)와 현실(시니피앙)의 단단한 고리, 혹은 그것들은 연결해주는 질서가 해체되고, 재편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와다 요코에게 3·11 이후의 일본은 인간만이 아니라 언어가 재난을 겪는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와다가 이 텍스트의 제목을 ‘불사의 섬’이라 지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²⁰⁾. 물론 이 제목은 직접적으로는 노인이 죽지 않는 섬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섬이 가라앉아 모든 인간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섬의 언어인 일본어는 좀비처럼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사의 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작품 속의 ‘나’처럼 실제로 독일 영주권

18) 다와다 요코, *Ibid.*, 197쪽.

19) 서경식·타와다 요오코, 서은혜(역) 『경계에서 춤추다』, 창비, 2010, 163쪽.

20) 『『献灯使』をめぐって-『献灯使』著・多和田葉子』에서 그녀는 “일본 열도가 ‘不治’가 아니라 ‘無事’하길 기원하고 가능하면 ‘不死’였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을 가지고 있는 다와다는 만약 일본열도가 침몰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겠지만, 그녀의 뇌리의 일본어는 결코 죽지 않고 그녀의 사고에 달라붙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게 일본은 ‘동정’과 ‘차별’을 대명사라기보다 일본어는 죽지 않는 ‘불사의 섬’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Ⅲ. 언어 경계의 넘기 - 언어의 분절을 넘는 이음새는 어떻게 가능한가.

「불사의 섬」이 독일이라는 먼 거리에서 전해들은 풍문과 소문으로 일본의 미래를 원근법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현등사」는 고립된 일본의 열도 안으로 직접 들어가 안으로부터 일본의 근미래를 그려나간다²¹⁾. 이러한 방식으로 「불사의 섬」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하나둘씩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일본의 정부가 민영화된 이후 은행은 망하고, 새롭게 찾아온 대지진 속에서 원전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혼슈 전역으로 확산되어, 수도였던 도쿄가 공동화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쿄 서쪽에 가설주택 속에서 살며, 노인은 죽지 않고 아이들의 유전자가 파괴되어서 뼈가 휘고 이가 빠지고, 신 것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본어라는 언어 질서의 변동이다.

살짝 신 맛이 나는 이 검은 빵에는 ‘亞阿片(아아펜)’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이 구운 빵에 ‘刃の叔母(하노오바)’, ‘ぶれ麵(부레멘)’, ‘露天風呂区(로텐부로쿠)’ 등 이상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가게 문에는 ‘빵은 여러 가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빵을 고르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이 표어는 요시로의 언어신경에는 거슬렸지만 빵집 주인의 두터운 껍밥을 보고 있노라면 신뢰감이 돌아왔다. 반죽해

21) 실제로 다와다는 2013년 여름 비록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쓰나미 피해지인 이와사키시의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후, 이 글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우면 맛있을 것 같은 낫밥으로 탄력이 있어 씹다보면 단맛이 나올 듯 했다. 이 빵집 주인은 ‘젊은 노인’이다. 일찍이 ‘젊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말투도 어느 틈엔가 정착했다. 90대가 되면 겨우 ‘중년 노인’으로 불리는 시대에, 빵집 주인은 겨우 70대 후반에 막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었다.²²⁾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 일본어에서 가타카나는 주로 외래어표기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³⁾. 하지만 쇠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이 없어진 ‘미래의 일본’에는 가타카나의 표기가 거의 사라져, 하노버, 브레멘, 로텐부르크 등의 유럽도시의 지명이 위와 같이 한자와 히라가나만으로 표기된다. 이렇게 다와다는 쇠국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사람들과 사물들의 왕래의 중단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상의 교류, 즉 각기 다른 언어들의 뒤섞임이 중단되는 사태로 파악한다.

물론 정부가 민영화되어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의 유무조차 불확실한 「현 등사」에서는, 로버트 캠벨이 지적한 것처럼 『1984』의 영사(영국 사회주의 정당)처럼 인간의 언어 사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어기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영 정부의 쇠국방침이 발표되자 정부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외래어 사용을 자발적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빵집 주인이 자신이 빵집 주인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외국의 국가명을 말할 때 목소리의 톤을 낮추거나, 눈동자를 돌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목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실은 추상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알프스의 풍경이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평론가가 반드시 있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내가 그리

22) 다와다 요코, *Ibid.*, 19쪽.

23) 물론 동식물명이나, 사람 이름, 강조 등에 쓰이는 일도 있지만 외래어 표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24) 多和田葉子×ロバート・キャンベル, *Ibid.*, 218쪽.

는 그림은 모두 웬지 외국 풍경으로 간주되고 말더군요. 이 문제로 정말 시달렸어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가업을 이으며 빵을 구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빵이야말로 유럽에서 온 것인데도 웬지 빵은 허용되었으니까요.”

“옛날에는 프랑스빵이라든지 영국빵이라는 말이 있었잖소. 그렇게 부르니 오히려 일본적이라 그림군요.”

요시로의 목소리는 외국 국명이 나올 때마다 작아졌다. 눈알을 좌우로 빙글빙글 돌리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빵도 실은 옛날에는 저먼 브레드라 불렀지요. 지금 정식명은 사누키빵(讃岐パン)입니다. 빵도 외래어입니다만.”

“빵은 먼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떠올려주니 좋네요. 먹는 것은 밥이 좋지만, 빵에는 꿈이 있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²⁵⁾ (강조는 인용자)

빵집 주인이 그린 추상화가 평론가들에 의해 ‘외국의 풍경’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실 추상화가 그 자체로 서구적인 미학의 도착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상화를 그린다는 행위 그 자체는 쇄국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마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분명히 서구의 냄새를 강렬하게 풍기지만 여전히 허용되는 ‘빵’-일본어에서는 여전히 가타카나로 표기된다-을 선택하고, 자신이 구운 빵들에 유럽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빵을 굽는다는 행위는 ‘먼 나라’(=일본의 외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은밀하게 전달하려고 행위이자, 정부의 방침에 대한 소심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반드시 통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야기 속에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위해 외래어는 뜻글자인 한자로 번역되거나, 그 음만을 한자의 음과 히라가나로 표기로 대체하게 되면서, 가타카나 그 자체가 거의 사어화(死語化) 되는데. 그렇다면 그 때 이러한 표기들만으로 이 말이 실은 외국의 지명이라는 것을 과연 젊은 세대들이 인지할 수 있을까.

예컨대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어의 가타카나는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표기

25) 다와다 요코, *Ibid.*, 22-3쪽.

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외래적인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외적인 것의 일본으로의 동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²⁶⁾. 반면 다와다의 경우는 그러한 가타카나의 존재로 인해 일본어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비일본어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타카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일본의 외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70대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된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100세가 넘은 노인 요시로에 관점에서 이야기된다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환경 변화 표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즉, 방사능으로 인해 아이들의 유전자가 뒤틀린다면 저항력이 떨어지는 노인 역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이러한 설정을 하고 만 것은, 바로 이야기 세계 속의 언어적 변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어 속에 수많은 외래어들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낱말이 늘어나는 시기를 경험한 70대 이상의 노인들만이 ‘刃の叔母(하노오바)’, ‘ぶれ麵(부레멘)’, ‘露天風呂区(로텐부로쿠)’라는 말에서 본래의 일본어와 다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야기 속에서 70세 이상의 ‘죽지 않는’ 노인들의 존재는 바로 새로운 언어 세계와 과거의 언어 세계를 이어주는 ‘이음새’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전에 본 그 작업복 같은 게 있었으면 해요.”

“작업복? 아, 이음새 말이군. 옛날 사람은 이음새를 오버올이라 불렀단다.”

“멋진데요, 오버올이라니.”

“하지만 오버올이라는 말은 외래어니까 쓰지 않는 편이 좋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표현에 무메이는 평소처럼 납득이 되지 않음을 느낀다. 말을 알고 있는 것, 알아도 일부러 쓰지 않는 것,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이 몇 층으로 흔들려 보인다. 부를 이름이 없어져도 의복은 계속해서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면 의복은 호칭과 함께 변신하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하는 것일까. ²⁷⁾ (강조는 인용자)

26) 柄谷行人, 『日本精神分析』, 文藝春秋, 2002. 70쪽.

어린 증손자 무메이(無名)을 돌보는 100세가 넘는 노인은 요시로는, 어떤 사물의 이름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든 고유한 일본어(繫ぎ: 이음새) 대신 외래어(オーバーオール: 펠빕바지)가 있음을 알고 있고, 그러한 외래어의 존재를 어린 증손자에게 가르쳐줌과 거의 동시에 쓰지 말라고 한다. 무메이는 이런 증조할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요시로 덕분에 무메이는 일본어의 바깥을 알게 되고, 이를 열망하는 존재로서 성장해, 마침내 일본의 실상을 외국에 알리는 사자(使者)들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보내는 비밀결사 조직인 헌등사(獻燈使)의 일원으로 선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시로는 단순히 한 때 일본에 외래어가 존재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존재는 아니라, 언어활동의 불투명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위의 장면 속에서 요시로의 발화에는, 한 때 외래어가 있었다는 자명한 사실과,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무와,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가르쳐주는 선의가 교차하고 있다. 요시로의 발화는 그런 언어의 틈새를 만들고, 증손자 무메이는 그 틈새를 통해서 요시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생각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래어를 없애거나 단어의 수를 줄이는 인위적인 조작만으로 인간의 언어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간의 언어 활동에는 어떤 발화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인가 반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혹은 사실확인적(constative)으로 이해할 것인가 행위수행적(performative)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며 긴 숙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시로가 무메이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어의 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언어활동이 파생시키는 혼돈을 포함한 언어활동의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와다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언어 질서가 파괴되고 만들어진 새

27) 다와다 요코, *Ibid.*, 131쪽.

로운 언어 질서의 세계를 그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언어의 질서 속에 완전히 몰들지 않는 인간의 가능성을, 언어가 가진 불투명성과 그 때문에 야기되는 다양한 해석 행위-차이를 만들려는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IV. 닫혀가는 세계를 언어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헌등사」는 표면상으로는 탈원전을 실현하지 못할 때 일본이 겪게 될 참상을 매우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위에서 확인했듯이 반드시 부정적인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제까지의 중심적인 지역이 몰락한 반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시코쿠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지역들이 부상하게 된다는 훈훈한 사실들도 알려지게 된다. 그것은 일본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남아프리카와 인도는 지하자원을 폭력적인 스피드로 공업제품으로 바꾸면서 저가 경쟁을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로부터 일찍 발을 빼고, 언어를 수출해 경제가 윤택해졌고, 그 외의 것은 수입도 수출도 하지 않았다. (중략) 남아프리카와 인도는 여러 외국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점점 윤택해졌다. 일본의 정책도 지하자원 수입과 공업제품 수출을 금지한 데까지는 같았지만, 수출할 언어가 없어서 거기서 딱 막히고 말았다. 정부는 오키나와 언어가 일본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하나의 언어라는 논문을 어용 언어학자에게 쓰게 해 중국에 적당한 가격으로 팔아넘기려고 꾀한 적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오키나와는 그딴 건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오키나와 말을 팔아넘길 작정이라면 이제부터는 과일을 일체 혼슈에 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28)

남아프리카와 인도는 각각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국가로서, 그런 언어적 다양성이 국가의 통합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곤 하는데, 다

28) 다와다 요코, *Ibid.*, 128-9쪽.

와다는 세계가 파편화되고 국가들이 각각 고립되는 미래에서는 그러한 언어적 다양성이야말로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물론 언어 수출이란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언어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예컨대 『1984』에서 조지 오웰이 그리는 미래가 언어의 단순화를 통한 통치성의 강화를 향하고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그렇게 생뚱맞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있어 언어가 차이를 인지시킬 수 있는 가장 미시적인 도구라면, 다양한 언어의 존재는 차이를 확보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와다에게 ‘쇄국’이 디스토피아로서 표상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언어활동을 제약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관련된다.

한편, 그러한 언어의 풍요로움과 힘이 살아 있는 이상, 디스토피아 세계 속에서 사는 인간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단순히 무기력하지만은 않음을 「헌등사」는 보여준다. 증조할아버지와 증손자 간의 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풍요로움이 계승되고 중지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아무리 참담한 세계라도 완전히 닫힌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헌등사」는 인간이 언어의 힘에 기대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상, 그 산물로서의 디스토피아 속에 여전히 희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민희, 「미래의 일본에서 현재의 일본을 보다」 『서울신문』, 2014년 11월 28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9017003#csidx6f090ce0a512ce596b531f6ba3df16c> 기사검색일(2018.04.30.)
- 다와다 요코, 남상욱(역), 『현등사』, 자음과모음, 2014, 1-303쪽.
- 다와다 요코, 배수아 「이방인 되기라는 예술」 『Axt』 10, 은행나무, 2017. 34-45쪽.
- 박영은, 「자마쥘의 소설『우리들』의 국제성과 예술적 반향 - 헉슬리의『멋진 신세계』와 오웰의『1984년』에 미친 디스토피아 소설의 ‘언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노어노문학』 제19권 제1호, 2007, 199-227쪽
- 서경식·타와다 요오코, 서은혜(역) 『경계에서 춤추다』, 창비, 2010, 163쪽.
- 이한정, 「일본 현대 작가의 자국어인식」 『日本語文學』 제40집, 2009, 165쪽.
- 조지 오웰, 정희성(역), 『1984』, 민음사, 2003, 17쪽.
- 최가형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 재난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2016, 50-73쪽.
- 최윤영,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일본비평』 12, 2015, 329쪽.
- 柄谷行人, 『日本精神分析』, 文藝春秋, 2002. 70쪽.
- 木村胡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4, 129~136쪽.
- 多和田葉子, 『エクソフォニー-母語の外へ出る旅-』, 岩波書店, 2012, 7-10쪽.
- 多和田葉子, 『献灯使』, 講談社, 2014, 1-272쪽.
- 多和田葉子, 「『献灯使』をめぐるって-『献灯使』著・多和田葉子」 『読書人の雑誌「本」』, 2014.11.15. <http://gendai.ismedia.jp/articles/-/40935> 기사검색일(2018.04.15.)
- 多和田葉子×ロバート・キャンベル, 「[対談]やがて"希望"は戻る-旅立つ『献灯使』たち」 『群像』 vol.70(1), 講談社, 214쪽.

❖ ABSTRACT

The language world of dystopia : focusing on the
“Fuji-no-shima” and "Gentoshi" of Yoko Tawada.

Nam, Sang-wook

Representing the future of language is a very difficult but important issue, because it signifies a world of language different from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it secures the identity of the present language between the future changed language and the present one. This paper examines the linguistic world of dystopia, focusing on the “Fuji-no-shima” and "Gentoshi" of Yoko Tawada.

First of all, “Fuji-no-shima” shows that, for Yoko Tawada, who was crossing the border between German and Japanese as a bilingual writer, the accidental Fukushima nuclear power generation in 2011 was accepted as the destruction of verbal order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é, due to physical changes caused by radiation leaks. "Gentoshi" tells that human ties can be maintained through language activities that can capture multiple meanings, even in a world where traditional language order is destroyed through a policy of seclusion.

From the above discussion, the novel Distopia, can actually be called Utopia as long as humans rely on the power of various languages to sustain it.

Key Words : Yoko Tawada, dystopia, Fuji-no-shima, Gentoshi, representing language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

